

야고보서와 로마서 충돌? 믿음과 행위 오해 풀기

약2:26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칭의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가를 살펴보았다.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야고보서 2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혼동을 느낀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야고보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향해 나아간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이다. 이제 야고보서 2장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야고보서의 성격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다루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다루며, 12장부터 16장까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는 달리 신학적인 구원 교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거듭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은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성령님은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는 두 차례밖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책은 구원의 교리를 바로잡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믿음이 바르면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 거룩한 행위가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권고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생산해 내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너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3장 13절에도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가?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8절과 9절에서 읽기를 멈춘다.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어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이를 분명히 한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구원의 순간에는 행위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이 관계된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엡 2:10). 따라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해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전에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가리킨다.

반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내세우는 공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때의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된 것이다.

결국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곧 칭의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참된 믿음이 실제 삶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뿌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은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대비하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긍정적인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믿음이 행위로 증명된다.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행위는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입증된다.

둘째,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22절은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3-40년이 지난 창세기 22장에서였다. 이것은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행위와 함께 드러났다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

셋째, 믿음의 소유자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24절은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부정적 진술이 아니라 앞의 논증 전체를 마무리하는 긍정적 결론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부정적인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14절은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마귀들의 믿음이다. 19절은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누구였는

가? 마귀들이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 사람보다 더 잘 안다. 그런데 마귀들은 알기는 하는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런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이라고 불린다. 이것도 결국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셋째는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나는 것이다. 공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로만 믿는다 하고 이웃에게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다.

넷째는 죽은 믿음이다. 26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라고 말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죽은 것이다. 살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표현의 두 가지 의미

야고보서 2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혹은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이다. 이때는 선한 행위가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에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 받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이 구원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 드러났는가? 사람들 앞에서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 받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의롭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드러남으로써,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임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의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의가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증거들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밝혀 준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지혜가 열매를 많이 내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21절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세 번에 걸쳐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구원을 세 번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구원의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을 여러 번 하실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이것은 구원의 칭의이다. 그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씨 하나 없는 늙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두 번째 사례는 로마서 4장 19-22절이 가리키는 사건이다.

19 그는 백 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 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국면이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백 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더욱 강한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다시 그에게 의로 전가하셨다. 이것은 구원의 칭의가 일어난 지 적어도 1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많은 설교나 해석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뒤, 19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읽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3절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가리키고, 19-22절은 그로부터 적어도 15년 뒤의 사건을 말하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둘째,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행위 신학에 맞서면서 칭의가 구원의 순간 단 한 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성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고 그 결과 이 본문의 의미도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셋째,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입증되는 문제라는 틀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틀 안에서는 로마서 4장 19-22절의 내용을 별도의 국면으로 구분하여 다를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교회 현장에서도 구원 이후의 성화 과정, 곧 믿음이 자라고 단련되는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 자연스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 본문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의롭다고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며 더욱 단련되고 강건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한 믿음을 그에게 다시 의로 전가하셨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었고, 창세기 17장 무렵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 성경은 이때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믿음은 단련되고 자라나며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짐이 구원의 시작을 보여 준다면, 창세기 17장에서 의로 여겨짐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 일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구원을 받을 때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입증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때 그의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곧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23절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완전히 입증되고 성취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난 세 번의 ‘의로 여겨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것들은 동일한 구원 사건이 반복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칭의를 가리키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원을 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 믿음이 자라고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된다.

25절의 라합도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라합은 여호수아기 2장 9-11절에서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하였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 주며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뒤따랐고, 그 행위를 통해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입증되었다. 그래서 25절은 라합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참된 믿음은 누구에게서든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반드시 삶 속에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믿음의 단련과 성화: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의 연결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단련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련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 구원은 그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수십 년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셨다.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적 소망을 하나씩 다 치워 버리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다.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 약속의 씨, 그 이삭을 약 20년 후에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밝히 보여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수십 년의 단련을 거쳐 마침내 부활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행위를 통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이다.

창세기 22장 16-18절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15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다.

16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18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천사가 전해 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약속을 단순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 맹세의 시점이 중요하다. 16-18절,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순종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응답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 상태였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믿음이 행위로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믿음에 대해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보증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구원의 시작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히 드러난 순간을 보여 주며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견딘 끝에 마침내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맹세로 확증해 주셨다.

히브리서 6장의 앞부분인 4-8절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결되는 엄중한 경고이다.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불순종과 타락 가운데 머물 경우, 보상을 잃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육체적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6장의 문맥이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구원의 출발점을 보여 주지만, 창세기 22장은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온전하게 되는 성화의 국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15절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인용하며 전개된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의 핵심 주제는 구원의 얻은 뒤 그것을 잃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 믿음이 어떻게 인내와 순종 속에서 성숙해 가는가 하는 성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4-8절의 경고 역시 구원을 잃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불순종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라고 말한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살 경우 구원 자체를 잃지는 않지만, 성화의 열매와 보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주의 만찬을 분별없이 행한 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육체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 이후에 히브리서 6장 13-15절은 위로와 격려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끈기 있게 인내하며 성화의 과정을 따라갈 때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신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3절의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말씀과 정확히 같은 흐름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구원과 성화를 함께 보여 주는 가장 선명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창세기 15장은 구원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반면 창세기 22장은 성화를 보여 준다.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십 년의 단련을 거치며 점점 강건해졌고, 마침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점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반드시 삶 속에서 선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 바울의 서신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말할 때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칭의를 가리킨다. 그것은 선한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다.

반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의의 근거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곧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 있는 믿음임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의미이다.

따라서 바울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뿌리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말한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2-15절이 보여 주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믿음 없이 행한 일들은 불에 타 사라지게 된다. 구원은 유지되지만 보상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약 45년에 걸친 긴 단련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단련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점점 더 온전히 누려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